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25주일
제37권 44호(가해) 2017년 9월 24일

[묵상]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

하느님의 썸,

하느님의 정의로우심과 자비하심,
사람들의 그것과는 다르다.

바리사이파와 사두가이파는
죄인으로 낙인찍힌 창녀나 세리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업신여겼다.
그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 몹시 불쾌하였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 처지가 어떠한,
하느님 앞에 무릎 꿇고 구원받기를 원하면,
누구나 하느님 앞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삶의 기준을 이웃들에 두지 말고 하느님께 두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늘 내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

-오-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미사 안내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성소후원회(첫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오전 10:00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8:00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성소후원회 (2,3,4,5주일) 1제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제주 - ●모임의 날 (안나/양업/성모/자모/대진) ●구리아 ●빈첸시오회 3제주 - ●요셉회 4제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30 오후 1:00 오후 12:3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오전	오후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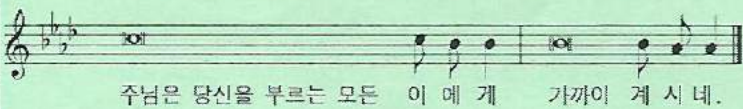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 출발

토요 저녁 미사	(연)이용식 베드로, 서성용 베드로, 박주현 마리아, 조 로사, 박승주 카타리나의 조상 & 박승효 & 박 레이몬드
	(생)박홍룡요셉, 박승주 카타리나의 가족, 조준제 요셉 & 조정석 수산나, 오창근 베드로 사제
학생 미사	(연)
	(생)
주일 낮 미사	(연) 박정미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임정자 분다, 김차옥 요셉 & 김복님마리아, 정상문 스테파노, 김진엽 마지아, 김정례 수산나, 정원교 요한, 박주현 마리아, 김충수 토마스, ST. Vincent de Paul
	(생)손석 스테파노, 박홍룡 요셉, 한장환 안토니오 & 송영미 베로니카, 임명희 켈라, 박진숙 엘리사벳, 메피의여왕 Pr.단원들, 민석준 토마스 & 미애 & 민영준 마르코 & 엔지 & 미아 & 니나, 이형삼 요셉, 박영오 & 강재순, 김지훈 대건 안드레아, 김 마누엘라 수녀,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55,6-9

화답송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 받으실 분,
그분의 위대하심 헤아릴 길 없어라.◎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느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제 2독서 필리피서(Philippians) 1,20-24,27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복음 마태오(Matthew) 20,1-16

영성체송 주님은 규정을 내리시어 어김없이 지키라 하셨나
이다. 당신 법령을 지키도록 저의 길을 굳건하게
하소서.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제1장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IV.인간 삶의 질의 저하와 사회 붕괴

자기 성찰, 대화, 사람들과 편견 없는 만남의 결실인 참된 지혜는 단순히 자료축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의 축적은 결국 과부하와 혼란을 일으켜 일종의 정신적 오염을 낳습니다. 현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하는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가 이제는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관계를 자기마음대로 선택하거나 끊어 버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자연이 맺는 관계보다는 컴퓨터와 그 화면을 통해서 맺는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꾸며낸 감정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오늘날 매체는 우리 서로가 의사소통을 하며 지식과 감정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매체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 두려움, 기쁨, 복잡한 개인적 체험을 직접 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이러한 매체가 흥미로운 기회를 마련해 주는 반면에, 인간 관계에 매우 우울한 불만을 야기하거나 외로움이라는 해로운 감정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V.세계적 불평등

48. 인간 환경과 자연환경은 함께 악화됩니다. 우리가 인간과 사회의 훼손의 원인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환경훼손에 적절히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사실 환경과 사회의 훼손은 특히 이 세상의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일상 생활의 체험과 과학 연구는 가장 가난한 이들이 모든 환경훼손의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²⁶⁾ 예를 들어, 물고기 개체수의 감소는 다른 생계수단이 마땅치 않은 영세 어민들에게 특히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수질오염은 특히 생수를 사먹을 수 없는 가난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계속>

26. 볼리비아주교회의, 볼리비아환경과 인간발전에 관한 사목교서 '세상,생명을 위해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 (Eluniverso,dondeDiosparalavida),2012.3.23.,17항.2.3.23.,

오늘의 성가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88	188	230
봉헌	268	268	264
성체	305	305	304
파견	343	343	345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느님

1990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20대의 젊은이 네 명이 승용차를 타고 친척 결혼식에 가던 일가족을 납치하고, 돈을 빼앗고, 탑승자 전원을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살려달라고 울며 애원했음에도 젊은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결국 네 명의 범인 중 한 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세 명은 불잡혀 모두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중 두 명은 사형이 집행되어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사형수 중 한 명은 2년 동안 교도소 생활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 사형수는 사형 집행 전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하찮은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를 합니다. 내 장기를 고통받는 사람에게 주고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고 난 다음에 그 사형수를 교도소에서 몇 년 동안 돌보았던 성직자에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흉포한 죄를 지은 사람이었는데 회개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 성직자는 대답했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느냐 여부는 인간인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형수는 인간 세상에서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벌을 받았고 회개의 표지로 자신의 시신을 기증했습니다. 구원을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구원은 하느님의 몫입니다.”

오늘 복음은 선뜻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만약 오늘 복음에 나오는 포도밭 주인처럼 품삯을 준다면 일꾼들은 불공평하다고 불평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일 시간과 세 시간, 그리고 한 시간 일한 임금이 똑같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일한 시간대로 계산을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속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밭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일꾼들이 받을 품삯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열심했던 바리사이 들과 유대인 들을 심중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성적인 바리사이들은 적어도 자신들은 이방인들과는 다르며, 더구나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과는 격이 다른 우월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들에게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 죄와 공로를 낱알이 헤아린다면 우리 중에 나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같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죄인이나 불의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영원히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은 죄인이 죽기보다 살아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 인간식으로 품삯을 정하지 않으시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또 벽 앞이라도

부딪힌 벽에서 막 돌아섰기에
당분간 관창을 줄 알았는데
벽은 길보다 훨씬 많고
여기가 바닥이려니 했지만
아직도 떨어지는 종이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우리 살아있으니까.
산다는 건 벽과 벽 그 틈을 오가고
바닥과 또 바닥 사이를 오르내리는 것.
그러면서 슬프고 행복하고 아프고 아름답다가
슬슬하길 반복하는 거지.

- 이영 아네스 -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박은혜 클라우디아	송인선 안젤라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정광미 프란체스카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1독서	박진수 스테파노	박혜경 레나타	신중철 아브라함
제2독서	변복순 베로니카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2독서	변복순 베로니카	한경숙 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1,4반	제물봉헌자			토동 2,3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 시작 20분 전에 독서와 복음 읽기를 합니다.
- 매일미사책이나 성경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 합시

♡오창근 베드로 신부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지난 4년동안 우리 백삼위 본당 신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해오신 오창근 베드로 신부님께서 임기를
마치고 부산교구 임호성당 주임으로 부임하십니다.
섬세하고 아쉬운 마음을 주님께 봉헌하고, 신부님
의 영육간에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 송별미사 : 오늘 주일(24일) 낮 미사

- ◆ 본당 신부님의 이임 / 부임 관계로 화, 수, 목, 금요일
평일 미사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추석 합동 위령미사

10월4일(수요일)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으로 한해의
수확에 대해 감사 드리는 날입니다. 올 한해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앞서 가신 조상님들과 부모,
형제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이 명절 미사를 봉헌합니다.

- 일시: 10월 4일(수요일) 추석,아침8시30분, 저녁 7시30분
- 미사: 합동 위령미사. 미사 중 분향 및 짧은 연도
- 미사예물 : 사무실에서 접수 중

◆ 9월 요셉회 모임 변경안내

본당의 날 행사관계로 모임을 임시 변경합니다.

- 일시: 9월 24일 (넷째 주일) 12:45pm
- 장소: 강당
- 문의: 정기은 비오 ☎(310)780-2789

◆ 주일학교 전진반 수업 안내

- 대상: 9학년이상 미 전진자
- 전진2반,수요일 저녁 7시,담당교사: 써니황
전진1반 : 마가렛 데리 성당에서 등록및 수업 진행합니다.
격주로 주일 오후 3시~5시, 9월17일 첫 수업
신청마감은 9월 30일입니다.

ST. Margaret Mary 25511 Eshelman Ave Lomita, 90717
☎ (310)326-9494

◆ 30회 남가주 성령채신대회 CD가 나왔습니다.

- 가격 : \$20, 사무실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강혜원 아네스 ☎ (310)780-0369

◆ 2018년 무술년(나해)달력 광고 후원 받습니다

- 신청마감 : 10월 1일(주일)
- 새해달력의 특징 : 전,후 달을 포함하여 3달을 한 면으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전례력, 독서, 복음, 성인축일, 대축일,
미국 국경일과 미국교구 대 축일, 한국명절, 국경일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내용 : 성경 캘리그래피
-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오.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9월24일: *전신자 점심나누기 (토서2반 :소고기 우거지국)
* 주일학교: (피자 : 3학년)
- 10월1일: * 전신자 점심나누기 (PV2반 :육개장)
* 주일학교: (샌드위치:1,2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권태만 김병태 김일선 김진우 박개순 박음전 성미선 송재훈 신순철 양영관 이일길 임 순 조화숙 최기호 홍인표	성전헌금	권태만 박개순 박음전 신순철 양영관 이일길 임 순 조화숙 최기호
합계:\$1,225		합계 : \$415	
주일미사헌금 :\$2,126		장학금도네이션 : \$5,000	

◆ 젊은이들의 '기도 맞들이기' 모임 (찬양과 나눔)

- 일시: 10월 14일(토) 오후 5시
- 장소: 백삼위 한인 성당
The Saints Koer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Torrance, CA 90505
- 문의: 이명서 수녀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310) 741-0556

◆ 중·고등부 성경공부 'Junior Bible Study'

- 일시: 10월 21일(토) 오후 4시
- 장소: 백삼위 한인성당
- 문의: 이명서 수녀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 (310)741-0556

◆ 일상 삶 안에서의 영신수련 (9개월 과정)

- 지도: 박준성신부 (예수회)
- 기간: 2017년 9월~2018년 6월
- 장소: 로올라 영성센터, 성 요셉 수녀원내 영성 건물
434 S. Batavia St. Orange, CA 92868
- 문의: 전 아네스 (Jenny Jun) ☎ (213)507-1144

◆ 제18회 말씀의 초막절(The Feast of Divine Word)

말씀의 초막절은 지난 1년 동안 이민생활의 광야에서 돌보아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축제입니다.

- 일시: - 개막미사 10월 8일(일) 4:00PM
폐막미사 10월 15일(일) 4:00PM
- 주간예절 10월 9일(월) - 9월13일(금),
(점심, 저녁 식사 제공)
10:00-12:00 AM & 7:30-9:30 PM
- 대상: 관심있는 모든 신자
- 문의: 714)521-1345
- 장소: 남가주 가톨릭성서모임(CBLM) 센터
6751 Western Ave, Buena Park, CA90621

◆ 예수성심 피정의 집 건립

- Payable to: Jesus Sacred Heart Retreat Center
Mailing Address: PO Box 75509, LA, CA 90075-5509
- 금액에 상관없이 벽돌 하나 봉헌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자동입금도 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Bank of Hope 은행
Routing No. 122038251
Account No. 001913271
- 문의: 최대제 신부 ☎ (213)248-9707

노공동체 9월 반모임

소 공 동 체 부장	김준 방지거 625-3312		
구 역 / 장	반	반장	비고
토렌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재 메히틸다 713-4926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2	장수영 패트리치오 781-0787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3	한길선레 스콜라스티카 218-7824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토렌스 서	1	박동수베드로 218-7340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2	김 아네스 (419)309-7256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3	박명순 안나 968-7600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토렌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458- 3356)	1	최옥희 테레사 755-8462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토렌스 북 황지영안젤라 (938-8089)	1 & 2	최미열 클라라 938-8089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하버 칼슨 김윤진 카타리 나 (997-5545)	1 &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3	1,2반과 같음	
P.V 유지아 클라라 (793-6157)	1	유현화 리디아 735-3722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2	안희정 스콜라스티카 (213)344-9738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4	변복순 베로니카 592-6945	9월17일 본당의 날로 대체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요셉회	12시45분
-----	--------

다음주일 단체모임

구역장 / 반장회의: 1시	사목회의: 5시
----------------	----------

아무리 죽을 복이라지만....

긴 여행을 할 땐 어쩔 수 없이 밤을 통과해야 하는 ‘야간 비행’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꼭 한 번씩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입니다. 그는 미술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한 비행사였습니다. 어린왕자에 나오는 아름다운 삽화를 직접 그리기도 했습니다. 어린왕자는 세제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베스트셀러입니다. 옛날 프랑스 50프랑짜리 지폐에 얼굴이 등장할 만큼 프랑스와 프랑스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작가입니다. 그는 1943년 정찰비행 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제가 20대 땐 그의 짧은 생을 안타까워하며 그래도 어린왕자 작가답게 멋있게 죽었다고 생각했지요. 별이 쏟아지는 사막에서 다른 아름다운 별로 갔겠지라고.... 그런데 몇 년 전 남아공으로 가는 야간비행 숙에선 그의 죽음이 더 이상 아름답지 않고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칠혹 같은 밤 속에서 어떻게 이 지구와 결별했으며, 죽는 순간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어느 별로 갔을까? 어린왕자의 죽음을 보듯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마도 제 나이가 구체적인 죽음을 생각해야 할 나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긴 요즘 친구들과 죽는 복에 이야기합니다. ‘그냥 잠자다가 죽는 것.’ 이것이 죽을 복이라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 그 무섭고 공포스러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러나 누구나 혼자 가야 하는 그 ‘초행길.’ 뇌물도 안 통하는 그 길을 나도 모르는 사이 건너버리는 것. 제 친구 하나는 잠자는 동안 잠자듯 죽기만 한다면 지금이라도 오케이라고 하더군요. 하긴 최고의 복이라는데 내일 오던 10년 후에 오던 내게 그 복이 오기만 한다면 웰컴 하며 반항하지 말고 가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봤지만 죽음이 두려운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몇 주 전 캄캄한 밤인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119를 불러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냥 침대에 누웠습니다. 머리는 계속 아픈데 피곤했던지 졸음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어머, 나 지금 잠들면 그냥 죽을 것 같아. 안돼 안돼.” 그 아픈 와중에도 저 자신을 비웃었습니다. ‘김세원, 뭐 자는 듯이 가고 싶다며? 왜 안 자려고 그래? 죽을까 봐?’ ‘아냐, 유서를 안 써놔서 지금 죽으면 안돼’라는 비굴한 자문자답. 머리는 몹시 아픈데도 웃음이 났습니다. 결

국 잠들었고 이튿날 아침 햇빛이 반갑고 고맙습니다.

제가 1980년대에 가끔 틀었던 상송 제목을 소개합니다.

‘Tout le mond veut aller au ciel mais personne ne veut mourir’

(모두들 천당에 가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 김세원 울리어나 / 방송인

[길을 찾는 그대에게]

공동체란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제까지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문득 의문이 생겼습니다. 본당이 공동체라는 말, 억지 아닌가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란 말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열두 사도들에게서 그 기원을 찾습니다. 여기에서 공동생활, 곧 공동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제활동을 근간으로 모든 생활과 신앙, 이념을 함께하는 조직을 공동체라 부르게 됩니다. 운명공동체인 가정은 가장 대표적인 공동체이며, 같은 신앙 아래 공통의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수도회 역시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 공동체를 모델로 삼으려 ‘공동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본당을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라 하고, 주변에 사는 신자 이웃들 모임을 소공동체라 합니다. 공동체 개념을 빌려 쓰는 것이지요. 비록 현실은 진짜 공동체와 분명한 거리가 있지만, 초대교회가 보여 준 공동체의 모범을 살아가려는, 곧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기쁨과 슬픔, 희망과 아픔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지를 담은 표현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빌려서라도 쓰고 싶은 겁니다.

개개인의 자유와 의사가 강조되면서 그 반대로 ‘함께’하고자 하는 공동체 의식은 그만큼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라 외치며 서로 나누고 함께하려는 꿈을 꾸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이 꿈이 단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토대가 될 뿐 아니라, 바로 하느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 홍경완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학장

사도(使徒)

‘사도’는 그리스어로 ‘Apostolos’ 즉, ‘파견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도’라는 칭호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당신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당신의 가장 가까운 협조자요 증인으로 부르셨던 열두 제자들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공생활’을 함께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탁월한 사도였던 바오로는 생전의 예수님을 뵈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사도로 뽑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사도 9,1-19 참조)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바오로를 찾아볼 수 없고 사도행전에 가서야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오로 사도는 ‘모든 민족의 사도’ 또는 ‘이민족의 사도’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갈라 2,7-9 참조)

바오로 사도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라 그리스, 소아시아, 로마 등지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사도들은 성경강림 이후에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바를 사람들에게 전했으며, 초대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승천 이후 성모 마리아와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기도예 전념하고 있다가 성령을 받고 온 세계를 향해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같은 주님을 섬기며 같은 가르침, 같은 전례를 행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안수를 통해 자신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에게 자신들이 지녔던 사명과 전권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과정을 사도전승이라 부릅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사도’는 사도직을 계승한 주교 등 성직자뿐만 아니라 사도적 활동을 하는 평신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은 사도직 수행의 권리와 의무는 성직자나 평신도나 모든 신자에게 공통적이라는 것과 교회 건설에 평신도들도 고유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교령 25)을 성직자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Quiz 괄호 안을 채우세요.

‘사도’는 그리스어로 () 이란 뜻입니다.

사도직 수행의 ()와 ()는 성직자나 ()나 모든 신자에게 공통적이며 ()에 평신도들도 고유의 역할을 가집니다.

9월17일 자 정답: 제대, 화해, 희생, 제대, 만남, 전례

◆ 유환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

「성경 속 동식물」 36 그늘을 만들어 주는 싸리나무

싸리나무는 잎이 거의 없으나 잔가지가 많아 광야에서 나그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는 나무 중 하나다. 구약 성경에서 싸리나무는 엘리야와 깊은 관계가 있다.

바알 예언자들을 죽인 엘리야 예언자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광야로 도망쳤다가 피곤에 지쳐 쓰러진 후 새 힘을 얻은 곳이 바로 싸리나무 덩굴 그늘이다.(1열왕 19,3-5 참조)

싸리나무 뿌리는 예로부터 숲을 만드는 데 널리 쓰였다. “전사의 날카로운 화살들을 싸리나무 숲불과 함께 받으리라.”(시편 120,4)

◆ 「성경 속 동식물」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행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례보험/장례적금/장례계획/묘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 에이전트
Jay Lee(이안셀보) 310-908-8823
CA Inc.Lic.#OE75182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BRE#01405988 New Star Realty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

조 마리아

☎(310)987-0736

자녀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코지다운/Cozy Down ♣

명품거위털이불, 레눅스 등 각종그릇, 한국택배
2424 Sepulveda Blvd # J, Torrance, CA
☎ 310-784-1212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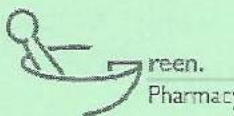
AAA approved repair shop

Body shop & Auto repair

종합정비

☎(310)965-0481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그린 약국

GREEN PHARMACY

(310)504-0600

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310)530-3010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케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토렌스 세풀베다길

뚜레쥬르

새로운 페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TOP18894-P 주정부 허가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항전문

24 / 7 미니 밴 형식 대기

TEL)310-516-8282

스킨케어

김영란 올리아

☎(310) 530-3654

1870 W.Carson St. #G Torrance, CA90501

베니스안경원

☎(310) 539-2449

23215 Hawthon Blvd. Torrance, CA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파고다 캐더링

각종 밀반찬.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CA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중,고,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피노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